

강의 주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 – Ideas to Reality

강사: 민병철 교수

주최: 휴넷 골드특강

일시: 2016년 03월 17일 목요일

1. 소속 및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노던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2. 경력사항

- 현 (재)선플재다. (사)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인터넷 평화운동)
- 현 외교부 사이버공공외교사절
- 현 북경어언대학교 초빙교수
- 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
- 건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학부 정교수
- KBS 24기 시청자위원회 위원(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국회, 한중일 대학생 선플토론회"공동대회장
- "북경, 한중일미러 국제 대학생 영어 평화포럼"대회장
- "북경, 한중일 청소년 즉흥 실용영어경지대회"공동 대회장
- MBC-TV, KBS-TV, EBS-TV 영어교육방송 진행

3. 수상내역

- Northern Illionis University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상
-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4. 저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세상을 끌어당기는 말, 영어의 주인이 되라', 100만부이상 보급된 '민병철 생활영어', '민병철의 하루 5분 베이비 영어', '글로벌 에티켓'(Ugly Koreans, Ugly Americans)외 다수

Ideas to Reality

1. **Imagine differently** 다르게 상상하라
2. **Write your own story**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라

3. Take action 행동으로 옮겨라
4. Enhance your English speaking skills 영어 스피킹 능력을 향상 시켜라
5. Create your own future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라
6.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thers 다른 사람들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라
7. Make your partners successful 파트너를 성공시켜라

Good Comments, Good Deeds 선플 선언문

나는 / 선한 말과 / 선한 글과 /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 이룩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 다짐합니다.

강의:

1. Imagine differently 다르게 상상하라

어떻게 하면 CNN 방송 출연할 수 있을까? 영어를 잘해야 한다, 대형 사고를 쳐야 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다섯 판 대국에서의 승자는 결국 구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국 기간 동안 구글의 시가총액이 58조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국장이 열린 푸시즌 호텔도 기업가치를 높이 올라 갔을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대국에서 나타난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이 인류의 생산방식, 시장구조, 생활양식 등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증명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교수는 전세계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세돌 9단은 영어를 못해도...한국드라마가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에 한국어로 수출되어 방영 되고 있다.

2007년 10월 17일 오전 8시 20분 서울 광화문광장 앞

세계적인 뉴스채널 CNN의 아시아 지역 간판 앵커인 크리스티 루 스타우트와 한국의 중년 남성 민 교수가 방성 카메라 앞에 섰다. 스타우트 앵커가 “ ‘악플’이 한국에서 얼마나 심각한가요”라고 묻자 민 교수는 유창한 영어로 ‘댓글 7개중 1개가 악플입니다. 하루에만 1200만개가 나오고 있죠’라고 답했다. 한국 토박이 중년 남성 민 교수는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는 게 당연했다. 1980년대 ‘민병철 생활영어’로 영어회화 붐을 일으킨 장본인 이다.

"여러분, '사이버폭력'은 영어로 'cyber bullying'이라고 합니다. '악플'은 영어로 'vicious comment', 선플은 영어로 'positive comment'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Cyber bullying must be stopped!"

“민 교수는 CNN방송에 출현 배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고 있었기에 출현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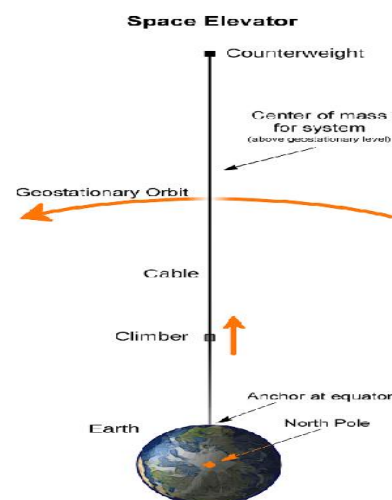
Alan Mathison Turing(1912~1954) was a pioneering British computer scientist. He was highly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providing a formalization of the concept of algorithm and computation with the Turing machine, which can be considered a model of a general purpose comput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uring worked for the Government code and cipher School at Bletchley Park, Britain's codebreaking center. For a time he led Hut 8, the section responsible for German naval cryptanalysis. He devised a number of techniques for breaking German ciphers, including improvements to the pre-war Polish bombe method and an electromechanical machine that could find settings for the Enigma machine. Turing played a pivotal role in cracking intercepted coded messages that enabled the allies to defeat the Nazis in many crucial engagements, including the Battle of the Atlantic;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is work shortened the war in Europe by as many as two to four years.

(source: Wikipedia)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get to the orbit around the earth?

60,000 miles up: Space elevator could be built by 2035. Projecting current research in carbon nanotubes and similar technologies, the IAA estimates that a pilot project could plausibly deliver packages to an altitude of 1000KM(621miles) as soon as 2025. With continued research and the help of a successful LEO(low Earth orbit; anywhere between an altitude of 100 and 1200 miles) elevator, they predict a 100,000KM(62,137mile)successor will stretch well past geosynchronous orbit just a decade after that.



"As for ThothX being used to launch astronauts into orbit, less than 1% of the energy required for orbit is saved by launching from a height of 20km," Hunt said. "There doesn't seem to be much benefit."

(source: canadian space and defense company Thoth Technology)

2. Write your own story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라

책을 읽지 말고 써라!

John Dryden(1631~1700) was an English poet, literary critic.

"We first make our habits, then our habits make us."(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

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Arnold Alois Schwarzenegger(1947~)

The Terminator Goal-Setting Strategy

Here's a man, a goliath of a man, who started life in some Austrian backwater and dreamed massive dreams. He was a million miles from the Hollywood he would one day claim as his own. But, as a mere 15 year old, he announced his dream and he went on to achieve it.

"I want to be the best built man in the world. Then I want to go to America and be in movies. I want to be an actor."

"아놀드 본인 또한 처음 트레이닝을 시작한 유년기에는 레그파크 같은 당대 보디빌더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언젠가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민 교수는 저"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If you don't write down, it doesn't exist."

민 교수는 자신의 글을 쓰려면 글을 쓰는 것과 동시에 관련된 수많은 책을 읽게 될 것이고 자신에 관련한 창작의 책이 발간 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3. Take action 행동으로 옮겨라

성공에서부터 죽는 방법까지 좋은 책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니컬러스 제임스(Nick Vujicic)는 설교사이자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기관인 사지없는 인생(Life without limbs)의 대표이다. 신체장애 뿐 아니라 희망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정기적으로 연설하고 있다.

닉은 독실한 세르비아 출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 시절에 임신을 하여 담당 주치의로부터 튼튼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의 부모가 아기를 보았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팔과 다리가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이는 건강한 상태였다.

해표지증 '바다표범 손발증'으로 불리는 팔, 다리의 뼈가 없거나 극단적으로 짧아 손발이 몸통에 붙어있는 기형을 말한다.

닉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 닉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8살이 되던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이어 그는 "울면서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난 직업도 못 가질거야'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하겠어'라고 생각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차라리 세상을 등지자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마음먹은 닉은 물이 가득찬 욕조 속에 빠지려고 했다. 하지만 닉은 "번뜩 부모님과 동생들이 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오랐다. 날 사랑한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순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 때부터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후, 그가 할 일은 많은 이에게 영감을 끼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된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은 그의 어머니가 중증장애를 극복해나가는 남자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여주었을 때이다. 이것을 통해 닉은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가진 이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닉이 17살 되던해, 그는 그리스도인 대화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며 결코 비영

리단체인 Life Without Limbs(사지 없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닉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게 되었으며 일본계 미국인 아름다운 외모의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

" You can believe in your dreams, but you have to take action to make them happen. You can believe in your talents and have faith in your abilities, but if you don't develop them and put them to use, what good are they. You can believe that you are a good and caring person, but if you don't treat others with goodness, where is the proof."

영어는 세계와 소통하는 기본 도구다. 지구촌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자신의 성장동력이다. 읽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되는 실용영어가 특히 필요하다. 현재 건국대에서 비즈니스영어를 원어강의로 가르치고 있다. 메인 프로젝트는 현재의 모바일 상거래 시대(mobile commerce era)에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바일 앱개발 제안서'로 만들게 하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무한경쟁 글로벌 취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휴먼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중 대학생 창조앱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Meal mate: 점심 시간때에 혼자서 식사를 하는 친구들끼리 앱을 통해 장소, 음식, 연령대 등을 맞춰서 식사를 하는 기능

Fumbler: 앱을 나무부품에 가져다 대면 조립 방법 설명해주는 기능.

Please Konkuk University join contest for app skills.

인터넷은 21세기 인류 제1의 의사소통수단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순식간에 얻을 수도 있지만, 근거 없는 내용을 장난 삼아 적는 한 줄의 글이 상대방의 영혼까지 못질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게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비방대신 응원과 배려의 아름다운 선물을 달아 주어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4. Enhance your English speaking skills 영어 스피킹 능력을 향상 시켜라

Reaction of Koreans.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한 중년 남자의 영어 연설을 들려주었다. 한 그룹은 한국인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외국인들었다. 이름모를 남자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어땠을까?

한국인으로 구성된 그룹의 평가는 한결 같이 부정적이었다. "촌스럽고 발음이 너무 딱딱 끊어진 다.", " "점수는 40점에서 50점을 주겠다", "우리 아이는 연설자보다 유창하게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반면 영어 원어민들로 구성된 그룹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높은 고급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 구조도 좋으며 분명하게 의사를 잘 전달하고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90점대 후반의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연설자는 바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다. 이 연설은 2006년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수락 연설이다.

반 총장의 연설은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원어민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아

름다운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영어의 문장구조 및 문법, 표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익숙함이 없이는 되는 않는, 문장내에서 끊어 읽기가 정확하며 악센트 또한 매끄럽다. 고급 어휘, 문장 구조 이외에도, 명연설로 꼽히는 만큼 콘텐츠 그 자체 또한 훌륭하며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서 누군가 이런 사람의 연설을 통역할 수 있다면 통역하면서도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좋아할만한 굴러가는 미국식 발음은 아니다. 이 발음으로 인해 앞서의 한국 사람들은 40점을 준 것이다.

민 교수는 "영어회화는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다. 이유는 대화체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이다(Conversational English is not knowledge but a skill). 그런 기술은 영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학습계획을 세운다면 반복훈련만으로 얼마든지 마스터 할 수 있다."

Don't just memorize vocabulary;

단어를 외우지 마라.

연관성 있는 영어를 학습하라

단순 문장만을 외우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대화하라

Learn Self-centered dialogues in English. Cluster English 덩어리 영어를 익혀라

대답이 자동으로 튀어 나오듯이 대화체 영어를 확실하게 마스터 하는 방법은 자신과 밀접한 내용을 Q&A형태의 클러스터영어로 익혀야 하며, 이 '덩어리 영어'들을 점차 확장 시킴으로서 유창성 영어구사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동시 말하기는 상호 연관성이 결여된 단순 문장 암기와는 달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

Speaking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 language learning. 동시 말하기 학습법

①Listen ②Repeating ③ simultaneous language learning ④ conversing

5. Create your own future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라

During your life, how many moments do you have to be successful?

Every moment!!!

Can you predict your own future? You can predict your future as..."You are creating your own future."

Connector is everywhere!

Dr. Phyllis Cunningham

Who could be your Ideal professional for a company required business skills

Sound character & personality

6·25전쟁을 거치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다. 민 교수는 부친도 어려움 탓에 정든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와 그를 낳았다. 때문에 집안 사정은 넉넉지 않았다. 그가 영어에 빠져든 이유도 배고픔이었다.

“어릴 때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녔어요. 호주 선교사가 있는 곳이었죠.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살았는데 종교에 빠져서가 아니라 선교사 부인이 만들어주는 미트볼, 스파게티 같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였어요. 그 선교사에게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였는데 주말마다 그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었어요.”

민 교수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문화를 소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978년 교민들과 함께 시카고에 한국문화원이란 걸 만들었다.

“‘한국 문화의 날’을 정하고 시카고시청 앞에서 교민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포트럭 파티를 하고 태권도, 부채춤을 선보였다”며 “행사 영어 사회를 제가 맡았는데, 당시 취재를 왔던 MBC 기자 한 분이 보고 ‘영어 실력은 물론 진행도 잘 한다’며 나를 초청했다”고 회고했다.

6.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thers 다른 사람들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라

“2007년 초, 한국에서 한 젊은 여가수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를 접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해 봄 학기에 내 영어수업을 듣는 570명의 대학생들에게 각자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10명의 유명인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방문해서 악플을 자세히 읽어 본 다음 이 사람에게 근거 없는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할 이유와 악플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선물을 달아준 후, 그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과제를 내어 주었다. 그 결과 악플이 달린 연예인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순식간에 5천7백개의 아름다운 선물이 달리게 되었고, 이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악플의 폐해와 선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선물운동이 시작된 계기다.”

“악플 근절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캠페인)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안전벨트를 예로 들어보면, 과거엔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았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캠페인과 함께 위반자들에게는 벌점을 부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서 요즘은 운전자들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한다. 벌점을 받을 까봐 매는 것이 아니라 안전벨트가 생명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물달기 캠페인과 악플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계층, 세대,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선물’은 착한 댓글(good comments), 긍정적인 댓글(positive comments)로, ‘악플’(malicious comments)의 반대말이다.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 하지 말고, 악플로 인해 상처 받는 분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자는 것이다. 또, 선물운동을 통해 긍정의 에너지를 사회에 퍼뜨려,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으로 영어로는 ‘Sunfull’로 표기한다. 신조어인 ‘선물’과 음이 가까운 영어로 ‘햇살이 가득하다’는 뜻이다. 특히 젊은 네티즌들에게 좋은 글을 써서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자는(to spread positive energy in society)것이 모토이다.”

Global Sunful Peace movement.

Message of condolence for

“인생의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Good Comments, Good Deeds 선플 선언문

나는 / 선한 말과 / 선한 글과 /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 이룩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 다짐합니다.

7. Make your partners successful 파트너를 성공시켜라

Who is your partner? When can you start. act now

Sydney Opera House – The Architect

“The sun did not know how beautiful its light was, until it was reflected off this building.”

American architect, Louis Kahn

최근 중국 최대의 SNS <웨이보> 선정 ‘공익유명인사 랭킹’ 17위에 올랐다.

6억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웨이보>의 ‘공익유명인사 랭킹’은 2014년 12월1일부터 2015년 11월30일까지 1년간 민간인들의 공익 활동 내역과 열람횟수 등을 분석해 상위 150명을 선정해 순위가 매겨진다.

민병철 이사장은 지난 12월16일 중국 저장성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 초청받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선플운동’을 소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같은 달 20일 중국 <CCTV> 인기 프로그램인 ‘대담’에서 방영됐다.

민 교수는 중국 <웨이보>가 선정한 ‘공익유명인사 랭킹’ 17위에 오른 것은 26만명의 중국인 팔로워를 대상으로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전개하고, 중국 네티즌들과 실시간 2차례 ‘선플토론회’를 개최해 5700만명이 ‘선플’ 관련 글을 읽는 등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선플운동’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 교수는 2008년과 2013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한국의 청소년들과 선플 교사들이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올린 추모 선플 1만여개를 모아 만든 추모선플집을 CCTV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선플운동에 동참하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추모사이트를 개설하고 5만여 중국 네티즌들이 추모의 뜻을 밝혀오는 등 선플운동을 통해 두나라 사이의 민간 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민 교수는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악플 대신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통한 긍정 에너지 전파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세계 네티즌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국경을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선플운동’은 2007년부터 민병철 이사장과 그의 수업을 수강하던 대학생들에 의해 시작돼 현재 전국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57만여명이 참여하는 인터넷문화운동으로 자리잡았다.

끝으로...

민 교수는 “앞으로도 영어를 도구로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선물을 통해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또, 선물운동이 응원과 배려를 통해, 화합에 일조하고,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나누는 데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우리는 바둑판에서 돌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미 9단의 경지에 올라 있을수도 있고, 높은 경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물어 보고 싶다. 그의 저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당신 옆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믿음을 주는 들었다.